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국제정치관을 중심으로 -

박홍규**
hkpark61@korea.ac.kr

Contents

Ⅰ. 머리말
Ⅱ. 1952년의 「해제」
Ⅲ. 역설적 사실
Ⅳ. 권도론
Ⅴ. 본위론
Ⅵ. 정치적 리얼리즘
Ⅶ. 맺음말

Ⅰ. 머리말

정치사상(사)가로서의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14-1996)의 제1 주제는 국민국가론(근대 내셔널리즘)이다. 그것은 자신이 실존하고 있던 동시대의 정치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가루베 다다시(苅部直)는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한다.

> 그것은 한편으로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하는 '국체'란 이념에 기초하여 정부와 군부가 '만민익찬(萬民翼贊)'이나 '진충봉공(盡忠奉公)' 혹은 '신도실천(臣道實踐)'과 같은 구호들을 통해 위로부터 국민을 동원하는 체제와는 달리, 사람들 개인 개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이 글은 김석근・가루베 다다시 엮음(2014)『마루야마 마사오와 자유주의: 냉전시대를 산 지식인의 사상과 행동』아산서원의 한 장으로 동시에 게재됨을 밝힌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인이 '자주적 인격'을 키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주체'로서 나라의 정치를 담당해 가는 체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체'에 내재하는 '팔굉일우(八宏一宇,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여기는 것)'라는 이념이 일본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만주나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여러 지역도 포함하는 '대동아공영권'의 지배질서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된 것에 비해, 다시 한 번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건전한 내셔널리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1]

이 두 가지 점은 마루야마의 스승인 난바라 시게루(南原繁)와 오카 요시다케(岡義武)가 전시에 공유했던 주장이기도 하지만, 마루야마가 이를 본격적으로 자기화한 계기는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1835-1901)와의 지적 대면을 통해서였다. 마루야마에게 후쿠자와는 단지 지적 선행자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정신적 위안처였으며, 현실로부터의 탈출구였고, 미래의 방향성이었다. 마루야마는 메이지 초기 후쿠자와의 사유와 행동에 자신을 투영시켜가며 자신의 실존과 학문의 활로를 모색했고, 전후에는 본격적으로 후쿠자와의 유산-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을 포함하여-을 계승하고자 했다.

그러나 후쿠자와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었다. 그의 "국가관과 국제정치관은 근대 일본의 국권 확장에 대한 길을 사상적으로 열어주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고, "실제의 시사(時事)론으로 후쿠자와의 주장을 더듬어 가면, 후쿠자와가 메이지 10년대에 국권론으로 중점을 이행시켰다는 점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다.[2] 이 "마마 자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후쿠자와보레(후쿠자와에게 반해버린 것)"를 자인하는 마루야마는 확신에 찬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야말로 끝 간 데까지 반해서야 비로소 볼 수 있는 연인의 진실—다시 말해 전철의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는 미인을 보고 있을 뿐인 눈에는, 하물며 처음부터 초월적인 비판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자에게는 끝내 도달할 수 없는—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닐까.[3]

1) 가루베 다다시 저, 박홍규 역(2011)『마루야마 마사오: 리버럴리스트의 초상』논형, p.91.
2) 마루야마 마사오 저, 김석근 역(2007)『"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문학동네, p.701.
3) 마루야마 마사오, 위의 책, p.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끝 간 데까지 반해서 비로소 발견한 대상의 진실은 설령 한동안의 열기가 식어버린다 해도 지속적인 각인으로 그 사람의 뇌리와 가슴 깊은 곳에 남는 것"이라고 말하는 마루야마는 1986년에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4]를 출판하게 된다. 이는 마루야마 생존 중의 최후 작품이며, 거기서 그는 자신의 뇌리와 가슴에 남겨진 각인을 유감없이 펼쳐 내보였다.

이 글에서는 "완전히 반해버린 연인에게는 분명 상대방의 마마 자국도 보조개로 보일 위험이 있다"[5]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마루야마가 후쿠자와보레라는 위험한 사유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과연 "연인의 진실"을 보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전철의 반대편 좌석에 앉아 초월적 비판의 시선으로 마루야마를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루야마가 『읽는다』에서 주장하고 구사한 내재적 이해의 방법에 따라, 마루야마를 통해 마루야마를 읽고자 할 것이다.[6] 이 글은 『후쿠자와 유키치 선집』 제4권의 「해제」를 기축으로 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마루야마의 후쿠자와에 대한 각인은 이 「해제」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7]

Ⅱ. 1952년의 「해제」

마루야마는 1952년에 간행된 『후쿠자와 유키치 선집』 제4권에 「해제」를 썼다. 그 머리말에서 마루야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나는 이하의 해제에서 하나하나의 논저에 대해 그 내용을 설명하는 보통의 방

4) 이하 『읽는다』로 약칭함.
5) 마루야마 마사오, 위의 책, p.8.
6) 후쿠자와의 국제정치관에 대한 마루야마의 이해를 마루야마 자신의 저작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분석한 본격적인 연구 논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마루야마의 후쿠자와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많이 있다. 그 중에서 마루야마가 만들어낸 '후쿠자와-신화'를 통렬히 반박하는 安川寿之輔(2003) 『福沢諭吉と丸山真男:「丸山諭吉」神話を解体する』 高文研은 이 글의 취지와 부합한다.
7) 『읽는다』는 「해제」에서의 논점으로부터 거의 변화가 없다. 단,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뒤에 본문에서 다룬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법을 취하지 않고, 후쿠자와의 다양한 정치론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적 입장을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양면에서 개설하여, 독자가 이 책의 본문을 읽을 때 개개의 발언이 후쿠자와의 정치사상 전체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얼마간이라도 알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8]

마루야마는 이어서 "이러한 방법은 그(후쿠자와)의 정치론이 상황적 발언이라는 사실과 일견 모순되는 듯이 생각되지만, 상황적 사고라는 것은 무원칙적 기회주의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면서, 후쿠자와 정치론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적 입장(원칙)을 확실히 설정함으로써 상황적 발언과 연관관계가 선명하게 부각될 것이라고 말한다.[9]

먼저 그는 국내정치의 원칙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정치권력 기능의 한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권력의 집약화이다. 마루야마에 따르면 이 두 원칙은 서로 모순하지 않으며 후쿠자와의 전 생애에 걸쳐 일관하고 있다. 기능의 한정이란 정부 혹은 정치권력의 존재 근거가 인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시민적 자유주의 정치관이다. 후쿠자와가 일관되게 역설한 것은 경제, 학문, 교육, 종교 등 각 영역에서 인민의 다양하고 자주적인 활동이었고, 그가 일관되게 배제한 것은 이러한 시민사회 영역으로 정치권력이 침범하여 간섭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정부 기능의 한정이란 추호도 통치기구의 이완 내지 비능률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통일성과 능률성을 갖춘 강한 정부를 지지한다. 이것은 결코 정부권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광범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권을 한 곳으로 통괄하는 것-다시 말하자면 정치리더십의 확립을 의미한다. 이것이 권력 집약화의 원칙이다.

> 한편에서 인권(또는 私權)의 확립에 기반한 인민의 다원적 자발적 활동과, 다른 한편에서 정권(또는 公權)의 확립에 기반한 일원적 지도성, 이 양자가 분업의 원칙에 따라 서로 침해하지 않고 서로 길항하고 평형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것, 바로

8) 丸山真男(2001)「『福沢諭吉選集』第四巻 解題」『福沢諭吉の哲学 他六篇』岩波書店, pp.119-120.
9) 丸山真男, 上掲書, pp.12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거기에서 후쿠자와는 국권(國權)의 진보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천(源泉)을 보았다.[10]

이러한 후쿠자와의 원칙론에서 마루야마는 주의해야 할 점을 지적한다. 후쿠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권과 정권을 혼동하여 동일시한 적이 없었다. 후쿠자와가 국권을 말할 때는 늘 정권과 인권이 가진 에너지의 총화를 의미했고, 그 용례는 거의 대외관계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루야마는 후쿠자와의 이론에서 국내정치의 원리가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후쿠자와의 논리가 국내관계와 국제관계에서 분열하고, 게다가 후자가 시종 전자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 실로 후쿠자와 사상의 전 체계에 존재하는 아킬레스건이었지만, 후쿠자와의 국권론이 최고조에 달한 경우에조차도 정치권력의 대내적 한계에 관한 그의 원칙은 조금도 깨지지 않았다.[11]

이상의 국내정치의 원리는 비록 구체적인 상황에서 강조점이 달라질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연속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같은 상황적 사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 영역에서의 모습은 국내정치와는 다르다. 국제정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처방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기저의 논리(근간을 이루는 이론적 입장) 자체가 변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국제정치적 관점이 일관되게 우위를 점하고 있기에 국제정치론의 추이는 필연적으로 국내정치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그렇다면 후쿠자와에게서 국제정치의 기저 논리는 어떤 변화의 추이를 보였는가?

후쿠자와의 국제사회관은 『학문의 권장』(1872년에서 1876년까지 전 17편이 간행됨)을 저술할 때까지는 대체적으로 계몽적 자연법에 근거하여 국내사회관과 일치하고 있다. 즉 개인간의 평등과 국가간의 평등이 병행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때의 평등은 사실적 강약관계와 무관한 권의(權義, right)의 평등을 의

10) 丸山眞男, 上揭書, pp.125.
11) 丸山眞男, 上揭書, pp.125.
12) 丸山眞男, 上揭書, pp.14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미한다. 만국공법은 실로 이러한 자연법적 규범이 실정법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13]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 독립과 국가의 그것이 단순히 유추에 의해 평행적으로 설명될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신 독립하여 일국 독립함"이라는 유명한 명제가 제시하듯이, 양자간에는 필연적인 내적 관련성이 있다. 국내에서 국민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확보하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14] 따라서 개인적 자유와 국민적 독립, 국민적 독립과 국제적 평등은 완전히 동일한 원리가 관철되어 절묘한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후쿠자와 내셔널리즘 아니 일본 근대 내셔널리즘에서 아름다웠지만 박명(薄命)했던 고전적 균형의 시대였다.[15]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자연법에 근거한 균형은 후쿠자와에게 오래가지 못했다. 1876년 『문명론의 개략』[16]을 저술하고 얼마 후인 1878년에 『통속민권론』 『통속국권론』을 썼을 때, 후쿠자와의 국제사회 논리는 이미 자연법으로부터 이탈해 버렸다.[17] "화친조약이든 만국공법이든 무척 아름답기는 하지만, 단지 외면의 의식(儀式)과 명목에 불과해, 교제의 실질은 권위를 다투고 이익을 탐하는 데 불과하다. …백 권의 만국공법은 몇 문의 대포만 못하고, 몇 권의 화친조약은 한 통의 탄약만 못하다. 대포와 탄약은 있는 도리를 주장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없는 도리를 만들어내는 기계다"(『통속국권론』) 라는 노골적인 권력정치관을 피력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도리의 부정, 즉 국내사회관과 국제사회관의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18] 먹느냐 먹히느냐라는 긴박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후쿠자와는 자국의 정치적 실존을 온전히 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적 행동의 제1 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국가이성(raison d'État)의 논리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19]

---

13) 丸山真男, 上揭書, pp.143.
14) 丸山真男, 上揭書, pp.144-145.
15) 丸山真男, 上揭書, pp.145.
16) 이하 『개략』으로 약칭함.
17) 丸山真男, 上揭書, pp.145.
18) 丸山真男, 上揭書, pp.146.
19) 丸山真男, 上揭書, pp.148. 『문명론의 개략』은 『학문의 권장』에서 『통속민권론』 『통속국권론』으로의 선회에서 중간에 위치한 작품으로 자연법적 규범주의와 국가이성 사상이 교착하고 있다고 마루야마는 설명한다(丸山真男, 上揭書, pp.148-14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마루야마는 후쿠자와의 국제정치론이 자연법사상에서 국가이성의 입장으로 변화(비약, 급격한 선회)하는 데 내면적 근거와 외부적 계기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문명론자인 후쿠자와는 "서양 제국의 사회는 합리주의 사회로 도리 또는 지혜의 조직으로 성립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명은 지혜의 문명으로 결단코 정실(情實)의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듯이 합리적인 것(道理)이 비합리적인 것(私情)을 구축(驅逐)하고 정복해 가는 과정은 바로 그가 일생을 걸고 추구했던 문명의 진보였다. 그러나 국가이성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는 그가 구축하고자 했던 사정(私情), 바로 자국에 대한 편파심, 보국심에 입각하여 행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후쿠자와의 선회였다. 마루야마는 이러한 선회가 후쿠자와가 국제사회에서의 압도적인 비합리적 현실에 직면하여, 합리성의 가치적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합리적인 편파심에서 국민적 독립의 추진력을 찾았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제정치론 변화의 내면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추론하고 있다.

> 그에게 있어 비합리적인 것이 굳이 미화되거나 합리화되는 일은 없었다. 그는 비합리적인 것을 어디까지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 안에 잠재된 생명력이 어떤 조건 하에서는 도리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역설적 사실에 착목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후쿠자와의 국가이성의 입장을 지탱하는 내면적인 근거였다.[20]

이러한 마루야마의 설명은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가? "합리성의 가치적 우월성의 인정"과 "역설적 사실" 두 가지를 통해 그 의도를 찾아보자.

전환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문명론의 개략』에서 후쿠자와는 분명히 합리성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다. 후쿠자와는 한편으로는 당시의 일본은 서구의 문명국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서구 문명국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적인 모습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한다. 당시의 일본보

20) 丸山眞男, 上揭書, pp.150-151. 이 인용문은 마루야마가 후쿠자와의 국제정치관을 해명하는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 문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전개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 서구는 더 합리적인 사회임이 분명하지만, 당시의 서구도 앞으로 달성되어야 할 진정으로 합리적인 문명사회에 비하자면 비합리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미개(未開)-반개(半開)-당시의 서구문명-진정한 문명이라는 진보관은 합리성의 가치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본보다 서구문명국을 우월시하고, 서구문명국보다 진정한 문명 상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쿠자와는 합리성의 우월성을 언제나 인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압도적인 비합리적 현실에 직면하여 비합리적인 편파심에서 국민적 독립의 추진력을 찾고 있으면서도 후쿠자와는 결코 합리성의 가치적 우월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계몽적 자연법의 입장[21]은 "합리적인 것(원인)이 합리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가정에 입각하며, 그리고 비합리적인 것에서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합리적인 것에서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비합리적인 것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마루야마는 이것을 '역설적'이라고 하는데, 이때 역설적이라는 것은 계몽적 자연법의 규범론에 비추어 보자면 역설적이라는 의미이다. 어떤 사상가가 자연법의 규범론이 배제하고 있는, 합리적인 것에서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고 비합리적인 것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는 두 측면에 착목하여 자신의 입론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를 '현실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두 가지 부류의 현실주의자가 있을 수 있다. 규범론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자와 인정하지 않는 현실주의자이다. 마루야마는 후쿠자와가 한편으로는 합리성의 가치적 우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비합리적인 사정(私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즉 전자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자와는 분명 규범론에서 현실론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규범론을 포기한 것도 아니다. 규범론을 인정하면서 현실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후쿠자와 국제정치론의 변화에 대한 설명에서 마루야마가 말하고자 한 것은 후쿠자와가 오로지 국가이성만을 자신의 입론의 기반으로 하는 적나라한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규범론을 한쪽에서 유지하는 현실주의자라는 것이다.[22] 다음

21) 이는 이념적 가치를 중시하고 비합리적인 현실에 저항하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을 강조한다.
22) 마루야마는 '리얼리즘' 또는 '정치적 리얼리즘'이라고 한다. 후쿠자와의 국제정치관 변화의 과정을 정치적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해명하는 것이 「해제」에서의 핵심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으로 “역설적 사실”에 대해 음미해보자.

Ⅲ. 역설적 사실

앞의 “역설적 사실”을 기술하면서 마루야마는 “후쿠자와의 사상에서 합리적 계기와 비합리적 계기의 얽힘은 그의 인간론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23]고만 언급하고 말았는데, “합리적 계기와 비합리적 계기의 얽힘”이라는 사고방식은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노리나가는 『고사기전(古事記傳)』(神代五之巻, 三柱貴御子御事依の段)에서 선과 악, 길과 흉의 계기성에 대해 논한다. 노리나가는 인간의 일은 신대(神代)의 이치에 근거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 무릇 세상의 모습은 그 시대 그 시대마다 좋은 일(吉善事)와 나쁜 일(凶惡事)이 차례차례 교차하며 이어지는데, 이런 이치(理)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 이 신대의 처음 취지에 의한 것이다.[24]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며 이어지는 신대의 취지를 노리나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자나기・이자나미 두 신이 부부 행위로 여러 나라와 신들이 탄생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여기까지가 좋은 일), 여신인 이자나미가 죽자 나쁜 일이 시작된다. 나쁜 일들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여신이 황천의 나라로 가서 영원히 머무르게 되는데, 이 황천의 나라는 나쁜 일의 귀결처이자 동시에 나쁜 일이 발생하는 곳이다. 이어서 남신인 이자나기가 황천으로 쫓아가서 더러움(부정함, 불결함)에 접하게 되자 세상의 모든 것이 나쁘게 되었다(여기까지가 나쁜 일로의 전이). 그러나 남신은 곧 현실의 국토로 돌아와서 더러움을 씻어낸다. 이것은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옮겨간 것이고, 좋은 일을 행해야 하는 인

서는 후술한다.

23) 丸山真男(2001)「『福沢諭吉選集』—第四巻 解題」『福沢諭吉の哲学 他六篇』 岩波書店, pp.150.

24) 本居宣長(1968)「古事記伝」『本居宣長全集』9 筑摩書房, pp.29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간의 도(道)는 바로 이 이치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나쁜 상태를 깨끗이 씻어낸 남신은 세 명의 귀중한 자식을 얻게 된다. 그 후 세 자식 중 한 명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御神)가 다카마노하라(高天の原)를 통치하게 되어 다시 완전히 좋은 세상으로 돌아온다(여기까지가 다시 좋은 일).

노리나가에 따르면 고금을 통하여 치란과 길흉이 교차하며 전이해 가는 만사의 이치는 모두 『고사기』「신대」의 이 단락의 취지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세상 현상의 모든 일에도 좋은 것에서 나쁜 것이 생기고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이 생기면서 서로 이어가는 이치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나쁜 것이 있어도 결국 좋은 것에는 이기지 못하며, 나아가 인간은 반드시 나쁜 것을 싫어하고 좋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치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치는 기묘하고, 신비롭고, 영묘(靈妙)한 것으로 세상의 만사 중에는 이 이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일본 신대(神代)의 영묘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노리나가는 이들을 "가라고코로(漢意)"에 침윤된 자들이라고 비판한다. 가라고코로란 중국식 사고방식으로, 선악과 시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르며 시(是)를 추구하고 비(非)를 배척하는 주자학적 합리주의를 주로 지칭한다. 노리나가는 주자학 모럴리즘의 논리 자체에 내재해 있거나 또는 현실의 주자학자들이 보여주는 위선과 허위를 공격하기 위해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 노리나가는 중국적 합리주의가 가진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포착하여 배격하고, 그 대신에 일본인의 순수함에 근거한 신묘한 이치를 찾아내어 일본의 신도(神道)를 창출했던 것이다.

이상의 『고사기전(古事記傳)』의 내용을 사실 마루야마는 「역사의식의 고층(古層)」(1972)의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는 노리나가의 이 명제가 얼핏 보기만큼 비역사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출현"이라든지, 사건의 '의미'가 역사과정에서 역전(逆轉)되는 현상 등 역사철학에서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저술 의도를 밝힌다.

> 주로 이른바 『고사기』『일본서기』의 신화, 특히 그 첫머리의 하늘과 땅이 열리는 것으로부터 세 명의 귀한 자식의 탄생에 이르는 일련의 신화에서 단순히 상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上古) 시대 역사의식의 소재를 찾는 데 머물지 않고서, 그곳에서의 발상(發想)과 기술(記述) 양식 에서 근대에 이르는 역사의식의 전개 양상의 밑바닥에 집요하게 흘러온 사고의 틀을 찾아보려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25]

마루야마는 신화의 첫머리의 서술에서 발상 양식의 세 가지 기초 범주(成る, 次ぎ, 勢い)를 추출해내어 그것을 "역사의식의 고층"이라 부르고, 그것이 "고대 이래 일본의 역사서술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접근방식의 밑바닥에, 은밀히 혹은 소리높게 울려퍼져 온–집요한 지속저음(持續低音, basso ostinato)"[26]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나루(成る)는 되다, 쯔기(次ぎ)는 잇다, 이키오이(勢い)는 추세로–이를 하나의 구절로 정리해 본다면, '쯔기쯔기 나리유쿠 이키오이(次ぎ次ぎ成り行く勢い) 즉 "잇달아 되어가는 추세"가 된다.[27] 이러한 계보적 연속에서의 무궁함(無窮性)이 일본의 역사의식의 고층에서 영원자(永遠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일본형 '영원의 지금'이 구성되었다고 마루야마는 본다.[28] 이런 무궁함은 시간 자체를 초월한 것은 아니며 시간의 무한한 직선적인 연장 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는 참된 영원성과는 다르지만, 가라고코로(漢意), 호토케고코로(佛意, 불교식 사고), 에비스고코로(洋意, 서양식 사고)에서 유래하는 영원상(永遠像)에 촉발될 때, 그것과의 마찰이나 삐걱거림을 통해서 그 같은 고층은 역사적 인과의식이나 변동의 역학을 발육시키는 적절한 토양이 되었다고 마루야마는 주장한다.[29]

마루야마의 고층론은 역사의식만이 아니라, 윤리의식과 정치의식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고 있는데, 항상 그때그때의 시대상 속에서 생성 에너지의 충만함을 보는 역사관이나, 공동체의 질서를 배반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윤리의식, 나아가 통치활동을 지배기구상의 상위자를 향한 봉사로서 파악하는 마쓰리고토(정치를 의미함)의 발상 등이 고대로부터 쭉 일본인의 사고의 저류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30]

---

25) 마루야마 마사오 저, 김석근 역(1998)『충성과 반역』나남출판, p.308.
26) 마루야마 마사오, 위의 책, p.310.
27) 마루야마 마사오, 위의 책, p.350.
28) 마루야마 마사오, 위의 책, p.370.
29) 마루야마 마사오, 위의 책, p.370.
30) 가루베 다다시 저, 박홍규 역(2011)『마루야마 마사오: 리버럴리스트의 초상』논형, p.17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연구사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전전·전시 중에 기히라 다다요시(紀平正美)나 미쓰이 고시(三井甲之) 등이 주장한 일본정신론이나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의 윤리사상연구에서 일본사상의 특성으로서 거론된 점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적인 것'을 말하는 논자들이 일본사상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논한 여러 요소를 마루야마는 오히려 극복해야할 문제점으로서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31] 즉 고층론은 "일본인의 하부 의식의 세계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고대로부터의 사고양식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문제성을 극복해보려는 의도에서 태어난 분석틀이다"[32]

에도시대에 주자학적 합리주의가 일본의 정치사회의 원리로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 노리나가의 국학이 발생한 것, 메이지 유신 이후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초국가주의로 전이되어 간 것 등에서 마루야마는 일본적 고층이 작용하여 합리적 보편사상의 전개를 저해한 것으로 보았다. 전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실현해가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설정한 마루야마는 실로 그러한 고층의 작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궁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루야마의 고층론을 가지고 후쿠자와의 자연법적 규범론에서 국가이성의 사상으로의 변화에 대한 마루야마의 설명을 다시 검토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후쿠자와가 "그(비합리적인 것) 안에 잠재된 생명력이 어떤 조건 하에서는 도리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역설적 사실에 착목했"다는 마루야마의 설명이 맞다고 한다면, 이는 마루야마가 극복하고자 했던 고층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후쿠자와에게서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자연법적 규범론에서 벗어난 "후쿠자와의 국가이성의 입장을 지탱하는 내면적 근거"란 바로 고층의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후쿠자와는 극복되어야 할 다분히 문제성을 지닌 사상가가 아닌가? 그러나 마루야마는 고층론을 주장한 이후에도 후쿠자와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후쿠자와에 대한 그의 애착은 더욱 강해져만 갔다.

31) 가루베 다다시, 위의 책, p.179-180.
32) 가루베 다다시, 위의 책, p.17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Ⅳ. 권도론

후쿠자와로 하여금 자연법에서 국가이성으로 급격히 선회토록 한 외부적 계기는 당시 일본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었다. 당시 유럽 제국주의의 창끝은 동양 제국을 겨누고 있었다. 페르시아, 인도, 샴(태국), 루손(필리핀), 자와(인도네시아) 등이 제국주의의 먹이가 되어버린 현실에서–자연법이나 국제법 및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은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만 적용될 뿐 후쿠자와는 동양 세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통감하고 있었으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이분법적 상황에 직면한 일본의 현실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33]

이상의 내외의 두 계기를 통해 후쿠자와는 국가이성에 대한 조숙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필연적으로 본래 의미의 마키아벨리즘을 수반하게 되었다. 마루야마는 다음과 같이 후쿠자와의 말을 인용한다.

> 남이 어리석게 행동하면 나도 역시 어리석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남이 폭력적이면 나도 역시 폭력적이다. 남이 권모술수를 사용하면 나도 역시 사용한다. 어리석음이든 폭력이든 권모술수든 전력을 다해 구사할 뿐 정론(正論)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국권론이 권도(權道)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름이니, 우리들은 권도를 따르는 자이다(「時事小言」).[34]

후쿠자와가 만국공법을 정론으로–국권론을 권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후쿠자와는 비록 자신이 국권론을 주장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정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나 후쿠자와의 국권론이 과연 권도론으로 합리화가 가능할까?

원래 권도란 경도(經道)와 짝이 되는 개념이다. 경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타당한 불변의 원리, 원칙, 도리로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다. 오륜(五倫)·오상(五常, 仁義禮智信)·왕도(王道)·인정(仁政) 등이 바로 그것이다. 반면 경도를 실행할 수 없는, 또는 경도를 실행할 경우 오히려 사태를 악

33) 丸山真男(2001)「『福沢諭吉選集』第四巻 解題」『福沢諭吉の哲学 他六篇』岩波書店, pp.151-153.
34) 丸山真男, 上掲書, pp.151-15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 권도이다. 권도의 고전적인 예가 바로『맹자』에 나오는 물에 빠진 형수를 구하기 위해 형수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이다. 원래 형수의 손을 잡는 것은 안 되지만 급박한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탕왕과 무왕의 방벌론도 권도의 전형적인 예이다. 원래 신하는 군주를 시해해서는 안 되지만, 평천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폭군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의 권도론과 후쿠자와가 말하는 권도론을 비교해보자.

유교 본래의 권도는 그 행위를 통해 '의(義)'를 실현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이익(利)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그 의(義)는 행위자는 물론, 행위의 대상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형수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는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수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리를 전제로 한 행위이고, 그 의리는 상대인 형수에게 적용된다. 폭군을 방벌하기 위해 폭력을 구사하는 것은 천하의 태평을 실현한다는 의리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 의리의 시혜자는 인민은 물론 폭군 자신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후쿠자와가 언급한 국권을 위한 권도는 이와는 다르다. 우선 국권의 신장을 위한 행위는 의리를 실현한다는 전제가 없으며, 오직 이익을 다투는 현실 속에서 자신도 생존을 구하려는 방책일 뿐이다. 어리석음, 폭력, 권모술수는 서로 간에 생존을 위한 이익 다툼의 수단으로써 구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무도(無道)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술(邪術)을 구사하는 것일 뿐이며, 이러한 사술은 정도(正道)와 전혀 상관이 없다. 후쿠자와는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후쿠자와가 말하는 국가의 독립은 그 국가만의 이익일 뿐이고, 게다가 자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상대국의 독립은 아랑곳하지 않는 일방주의에 불과하여, 상대 국가까지 포함하는 대의, 도리의 관념은 없다. 혹은 국권 확장을 통한 일본의 독립이 문명화된 세계평화로 이어지리라는 생각을 후쿠자와는 품고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비합리적인 것, 국권론) 안에 잠재된 생명력이 어떤 조건 하에서는 도리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결과(세계평화)를 산출하는 역설적 사실에 착목했"다는 마루야마식 설명이 타당하다면 말이다.

치열하게 유학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후쿠자와가 하필 이 대목에서 유학적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프레임을 차용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실상 그의 권도론은 유학의 본래 취지와는 상관없는 후쿠자와식 권도론, 즉 정론과의 긴장관계가 상실된 권도론이다. 후쿠자와가 본래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국권론을 권도론으로 포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마루야마다. 원리론보다는 상황론과 시사론에 능한 후쿠자와는 그렇다 치더라도 원리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마루야마가 그런 후쿠자와를 해명하는 논리를 좀 더 살펴보자. 마루야마는 후쿠자와가 주장하는 권도론을 마키아벨리즘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 마키아벨리가 "사악한 행동을 권한 경우, 그는 그러한 행동으로부터 사악하다는 평가를 지워버리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결코 위선적인 꾸밈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F. Meinecke, Die Idee der Staatsräson, 1924, S. 41)"던 것과 마찬가지로, 후쿠자와의 경우에도 아무리 그가 국권 확장을 소리 높여 주장하던 때에도 그러한 국가행동과 자연법적 가치규준 사이의 긴장관계를 의식하고 있었다.[35]

후쿠자와가 그런 긴장관계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예로써, "세계 각국이 서로 대치하여 탐하려는 상황은 금수가 만나 서로 잡아먹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점에서 본다면 우리 일본국도 금수 중의 한 나라로 피차간에 의지할 것은 금수의 힘(獸力)뿐이다", "조선의 내정 개혁을 위해 차관을 제공한 것도 의협(義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自利)을 위해서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압제로부터 벗어나 오직 우리만이 세계를 상대로 압제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도 후쿠자와는 영국인을 노예처럼 부리는 몽상을 혈기의 수심(獸心)이라고 부르고 있다" 등을 마루야마는 거론하고 있다.[36]

나아가 마루야마는 후쿠자와가 국권론과 정론 사이, 국가행동과 자연법적 가치규준 사이, 의협과 자리(自利) 사이의 긴장관계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여, 막스 베버의 개념을 빌어 후쿠자와를 "깨어있는 정신의 소유자"로 표현하고 있다.[37]

35) 丸山眞男, 上掲書, pp.154-155.
36) 丸山眞男, 上掲書, pp.155.
37) 丸山眞男, 上掲書, pp.15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상과 같은 설명을 통해 마루야마는 비록 후쿠자와가 자연법적 규범론에서 국가이성의 사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그는 결코 적나라한 현실주의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마키아벨리와 베버의 이론을 동원하여 후쿠자와가 악을 악으로써 인정하고 규범론과 현실론 사이의 긴장관계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깨어있는 사상가였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논리가 빈곤한 후쿠자와의 권도론은 마루야마의 화장을 통해 그럴듯하게 포장되었다. 하지만 마루야마는 정말로 후쿠자와의 '마마 자국'을 지우는 데 성공한 것일까?

V. 본위론

후쿠자와의 내셔널리즘은 "일신 독립하여-일국 독립함"이란 테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계몽적 자연법에 기반한 이 테제는 점증하는 제국주의의 압박 속에서 국가의 독립을 보존해야 한다는 긴박한 현실적 상황에 직면하여, 양자의 균형이 깨지고 점차 후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갔다.[38] 이러한 논리 변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후쿠자와는『개략』에서 두 가지 장치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본위론(이념의 극단화)이고, 다른 하나는 단계론의 설정이다.

『개략』의 기본 명제는 인류는 문명을 향해 진보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개에서 반개로, 반개에서 당시의 서구문명으로, 그리고 진정한 문명으로 수준을 높여 간다는 것이다. 본위론이란 비록 "인류가 실로 도달해야 할 문명의 본래의 취지"[39]인 "최후 최상의 큰 목표"[40] 즉 진정한 문명을 지향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달성해야 할 우선적 과제(본위)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쿠자와는 일본의 독립이 그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후쿠자와는 이 주장의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념을 '극단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를 인류가 진실로 의거해야 할 큰 목표로서 설정하고[41], 그 교리를 확

38) 마루야마의 표현에 따른다면 계몽적 자연법에서 국가이성의 인식으로의 변화(비약, 선회)이다.
39) 후쿠자와 유키치 저, 임종원 역(2012)『문명론의 개략』제이엔씨, p.400.
40) 후쿠자와 유키치, 위의 책, p.40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산시켜 정치에 영향을 주어 국가독립의 기초를 세우려 하는[42] 설에 대해, 후쿠자와는 "종교는 광대하기에 지나치고, 착하고 아름답기에 지나치고, 고원하기에 지나치고, 공평하기에 지나치다. 반면 각국이 대립하는 양상은 도량이 좁기에 지나치고, 비열하기에 지나치고, 천박한 견식이기에 지나치고, 편파적이기에 지나쳐서, 양쪽 모두 상접할 수 없다."[43]고 논박하면서, 지금 세계와 일본의 실정에서 일시동인·사해형제의 대의와 보국진충·건국독립의 대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이때 후쿠자와는 기독교의 이념과 국제정치의 현실을 극단적 이분법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이념과 현실 사이의 긴장성을 소멸시켜버려, 어느 한 쪽으로의 선택을 강압한다. 물론 후쿠자와의 의도가 현실로의 귀착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천지의 공도(만국공법, 계몽적 자연법)가 독립 보존을 위해 제거당하는 것도 이와 같은 논법에 의해서이다.

> 그런데도 동서의 간격, 전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서양 사람에 대해서 그 교제에 '천지의 공도'에 의존한다 함은 과연 무슨 심사이더냐. 멍청한 짓도 정도가 심하다. 속된 말로 이른바 우직한 사람의 논의라 할 수 있을 뿐. 천지의 공도는 물론 우러러 사모할 만한 것이니, 서양 각국이 흔히 이 천지의 공도에 따라 나를 접할 것인가, 나 역시 감수하고 이에 응할 것이니, 결코 이를 사양할 것은 아니다. 만약 그것이 역시 그러하다면, 우선 우리가 옛 번을 폐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정부를 폐해야 할 것이다. 학자들, 여기에 가능성이나 전망이 있는가.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나 전망이 없다면, 전 세계에 나라를 세우고 정부가 존재하는 한은 그 국민의 개인적인 감정을 제거하겠다는 방도는 있을 수 없다.[44]

여기서 후쿠자와는 정치적 이념을 무정부 세계로 설정하고,[45] 그것을 상업과 전쟁이 지배하는 지금의 '현실'[46]과 극단적으로 대치시킴으로써 만국공법의 실

41) 후쿠자와 유키치, 위의 책, p.363.
42) 후쿠자와 유키치, 위의 책, p.364.
43) 후쿠자와 유키치, 위의 책, p.368.
44) 후쿠자와 유키치, 위의 책, p.390-391.
45) "이 세상에 아직도 지문(至文) 지명(至明)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선(至善) 지미(至美)한 정치도 역시 아직은 존재할 수가 없다. 혹은 문명이 극도에 도달하면 어떤 정부도 완전히 무용지물에 속할 것이다(후쿠자와 유키치, 위의 책, p.92)."
46) 후쿠자와 유키치, 위의 책, p.36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현 불가능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설정에서는 정치적 이념과 국제정치의 현실이 긴장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국가 간의 외교는 천지의 공도에 입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폐기된다.[47] 본위론을 통해 이념과 현실 간의 긴장성을 소멸시켜 결국 현실에 귀착시키는 후쿠자와의 논법은 다음 인용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 사람들은 혹은 말할 것이다, 인류의 약속은 단지 자국의 독립만으로써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특별히 영원과 고상의 극에 착목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은 참으로 그러하다. 인간의 지덕이 극도에 이르러서는, 그 기하는 바, 물론 고원하여, 일국독립 등의 사사로운 것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고작 타국의 경멸을 면하는 것을 보고, 즉각 이를 문명이라고 명명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세계적 현상에 있어서 나라와 나라와의 교제에는 아직 이 고원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만약 이를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면 이를 우원(迂遠)·공원(空遠)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목하 일본의 정황을 관찰하자면, 더더욱 사태가 급박함을 느끼고 또한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우선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의 인민을 존재하게 하고 그러한 후에 여기에 문명에 관한 것까지 이야기해야 한다. 나라가 없고 사람이 없으면 이를 우리 일본의 문명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이 이른바 내가 논의의 영역을 좁게 해서, 단순히 자국의 독립으로써 문명의 목표로 삼는다는 논의를 주창하는 이유이다.[48]

이렇게 자국의 독립을 진정한 문명으로부터 분리시켜 일단 그 존립 근거를 확보했지만, 그렇다고 현실과 이념의 긴장성 상실이라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단절된 양자를 연결하기 위해 후쿠자와는 두 번째의 장치인 단계론을 도입한다.

> 여기에는 나의 위치를 현재의 일본으로 한정하여, 그 논의도 역시 자연히 그 구역을 좁혀, 단지 자국의 독립을 얻게 하는 것을 보고, 잠정적으로 문명의 명칭을 부여한 것일 따름. 고로 지금의 우리 문명이라고 한 것은 문명의 본래의 취지는 아니고, 우선 사태의 첫걸음으로서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고, 그 밖에는 이를 두 번째

47) 이는 all or nothing식의 이분법이다. 그러나 만국공법은 부분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실제 서구문명은 그렇다. 이것을 후쿠자와도 『개략』에서 언급하기도 한다.
48) 후쿠자와 유키치, 위의 책, p.39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 걸음으로 남겨두어, 훗날 할 바 있을 것으로 한다는 취지이다.[49]

현실과 이념의 관계를 본위론의 극단론으로 분리하여 자국 독립의 존립 근거를 확보한 후, 다시 현실과 이념의 관계를 단계론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통해 후쿠자와는 문명론과 독립론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마찰을 해소하고, 나아가 일국 독립을 강조함으로써 깨어진 일신 독립과의 균형을 복원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먼저 국가의 독립을 달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민의 자주적 주체성을 확립하여, 진정한 문명을 향해 진보해 간다는 전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쿠자와 사후 일본 역사의 전개는 이러한 후쿠자와의 전망을 전복시켜 버리고 말았다.[50] 일본 독립의 긴급성은 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주체적 국민의 형성을 동반한 국내 개혁은 저해되어 천황제가 강화되었고, 국가의 독립을 넘어 비대해진 국권은 군국주의적 대외팽창으로 전개되어 전쟁을 거듭하면서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후쿠자와의 "국가관과 국제정치관은 근대 일본의 국권 확장에 대한 길을 사상적으로 열어주었다는 비난을 받"[51]게 되었고, 이는 후쿠자와에게 "마마 자국"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 마루야마가 어떻게 "연인의 진실"을 복원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자.

Ⅵ. 정치적 리얼리즘

마루야마는 훗날의 역사 전개를 가지고 후쿠자와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오히려 후쿠자와의 본래의 의도를 복원하여 거기에서 후쿠자와 사상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그것을 위해 마루야마가 사용한 장치가 앞에서 언급했던 "내면적 근거"[52]였다. 외면적 계기로 작용하는 현실의 긴박함에 압도되어 계몽적 자연법에서 국가이성의 입장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그 변화는 어디까지나 후쿠자와 자신의 주체적·내면적 근거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마루야마가 제시한

49) 후쿠자와 유키치, 위의 책, p.400.
50) 丸山真男(2001)「『福沢諭吉選集』第四巻 解題」『福沢諭吉の哲学 他六篇』岩波書店, pp.160.
51) 마루야마 마사오 저, 김석근 역(2007)『"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문학동네, p.701.
52) 丸山真男(2001)「『福沢諭吉選集』第四巻 解題」『福沢諭吉の哲学 他六篇』岩波書店, pp.15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실과 이념 사이의 긴장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비합리성에 잠재된 생명력이다.

후자는 이미 앞에서 서술하였는데, 여기서는 후쿠자와가 왜 그런 근거를 상정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다시 한번 주목한다. 후쿠자와가 분리된 현실과 이념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도입한 단계론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일견 현실과 이념 사이에, 즉 독립이라는 첫걸음과 문명의 본래 취지라는 둘째 걸음 사이에 연계가 확보된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트릭일 뿐이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동물의 왕국이며,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짐승의 마음"으로 짐승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언제, 어떤 계기로 짐승의 상태에서 지적·도덕적으로 고양된 인간의 마음으로 전환되어 인간의 왕국을 거쳐 신적 왕국(진정한 문명)으로 향할 수 있단 말인가. 문명의 진보는 권력의 편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독립은 권력의 편중에 편승하여 편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문명과 독립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뿐 그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후쿠자와의 단계론에는 내적 필연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했다. 이 문제를 마루야마는 "비합리적인 것에 잠재된 생명력이 합리적 결과를 산출한다"는 논점—동물의 왕국에서 인간의 왕국으로 신묘하게 전이한다는—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952년의 「해제」의 시점에서 도입된 이 논점은 1986년의 『읽는다』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해제」에서의 다른 논점들은 『읽는다』에서 거의 유지되고 있는데 이 논점만은 사라졌다.[53] 아마도 자신이 극복하고자 했던 고층의 논리를 가지고는 후쿠자와의 진정성을 옹호하는 논리로 삼기 어려워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 마루야마의 비합리성의 역설은 자신의 고층론으로 인해 퇴장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비해 내면적 근거의 다른 하나인 현실과 이념 사이의 긴장관계는 『읽는다』에서 한층 강화되어 나타난다.

원래 후쿠자와는 국가 독립의 존립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실과 이념의 관

53) 이러한 논점은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예시의 형태로는 남아 있지만, 「해제」에서와 같은 명제 형태의 서술은 없다. "예컨대 내란이나 전쟁과 같은 것일까. 또한 심지어는 독재와 폭정과 같은 것도, 세상의 문명을 진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그 공로가 현저히 세상에 드러나는 시기가 되면, 반쯤은 지난날의 추악함을 잊고서 이것을 책하는 사람이 없다"(후쿠자와 유키치 저, 임종원 역(2012) 『문명론의 개략』 제이엔씨, p.7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계를 분리하였다가 다시 연결하여 관계성을 복원하려고 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마루야마는 후쿠자와에게서 나타나는 현실과 이념의 관계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다.

> 문명의 본지로 보자면 자국의 독립 같은 것은 "세세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일'이라고 보는 거시적인 눈과, 그러나 그런 세세한 일이야말로 지금으로서는 긴급하고 절실한 과제라는 위기의 상황 판단이 이어져 있습니다. 놀랍도록 성숙한 정치적 인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상반되는 명제를 동시에 진행시키면서 논의해가는 것입니다.[54]

문명의 본지라는 이념과 자국의 독립이라는 현실을 동시에 인식하고 연계하여 논의를 진행시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양자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할 뿐,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다이나내즘—필자가 앞에서 분석한 양자의 분리와 연결—을 마루야마는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마루야마의 독특한 시각은 그 다음에 있다.

> 그것(국가 실존 이유의 사상)은 국가권력과 내셔널리즘의 '편파성'의 의식—다시 말해 다른 극으로서의 '사해형제'라는 보편적인 이념성의 인식—에 의해 끊임없이 견제되는 한에서, 바닥을 알 수 없는 진흙 연못과 같은 자기기만이나 위선과는 달리, 끊임없이 양자의 모순 감각을 자기 정신의 내면에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55]

후쿠자와의 국가이성 사상은 사해형제라는 보편적인 이념성(합리성, 善性)과 국가권력과 내셔널리즘의 편파성이라는 현실성(비합리성, 惡性)에 의해 동시에 견제되기에, "그에게 있어 비합리적인 것은 굳이 미화되거나 합리화되는 일은 없었다. 그는 비합리적인 것을 어디까지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했"[56]다. 이것이 대동아공영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보여주었던 "바닥을 알 수 없는 진흙 연

54) 마루야마 마사오 저, 김석근 역(2007)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 문학동네, p.118.
55) 마루야마 마사오, 위의 책, p.704.
56) 丸山真男(2001) 「『福沢諭吉選集』—第四巻 解題」 『福沢諭吉の哲学 他六篇』 岩波書店, pp.15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못과 같은 자기기만이나 위선과는 달리" 후쿠자와의 탁월함—"놀랍도록 성숙한 정치적 인식," "깨어있는 정신의 소유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준엄한 이원적 대립의식을 기초로 한 국가의 '실존'의 강조는 높이 수평으로 매달려 있는 예리한 칼 위를 걷는 것과도 같은 위험성을 수반하게 되고, 실제로 후쿠자와가 메이지 10년대에 국권론으로 중점을 이행시켰다는 점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당면한 사상적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국가 실존 이유가 아무리 위험한 모험을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거기에는 자기기만이나 위선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는 것이다.[57]

현실과 이념의 관계에 대한 마루야마의 시각은 양자의 관계를 정치적 리얼리즘과 연계시켜 설명함으로써—「해제」에서 보이지 않고 『읽는다』에서 나타남—그 독특함을 더욱 발휘하게 된다.

> 그리고 제2단락과 제3단락[58]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후쿠자와의 리얼리즘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인류보편의 이념으로서의 일시동인 사해형제와, 다른 한편으로 국가가 무역과 전쟁을 통해 이익을 다투거나 또는 서로 살육하고 있다는 세계의 현실, 이들 양자의 이원적인 긴장의 의식입니다. 이들 두 계기를 같이 파악하지 않으면—다시 말해 한쪽의 '이념'을 경시 또는 무시하고 다른 쪽의 '현실'을 오로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긴장의 의식에 근거한 리얼리즘은 나오지 않습니다.[59]

마루야마는 후쿠자와의 국제정치론이 "'현실'주의"(「'現実'主義の陥穽」, 『丸山真男集』5)가 아닌 "정치적 리얼리즘"(「政治的判断」, 『丸山真男集』7)의 소산이라고 주장한다. 바로 이것이 마루야마가 찾아낸 후쿠자와라는 "연인의 진실"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

마루야마는 "'현실'주의"와 "정치적 리얼리즘"을 구분한다. 이상론을 개진하는 사람에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비난할 때의 '현실'은 대략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마루야마는 설명한다. 첫째는 현실의 소여성이다. 소여성이란 기

57) 마루야마 마사오 저, 김석근 역(2007)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 문학동네, p.701.
58) 후쿠자와 유키치 저, 임종원 역(2012) 『문명론의 개략』 제이엔씨, p.364.
59) 마루야마 마사오, 앞의 책, p.69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정사실이라는 말로 등치될 수 있다. 따라서 "어쩔 수 없다"는 체념으로 전환되어 기정사실에 굴복하게 된다. 둘째는 일차원성이다. 현실에 포함된 다면성 중에서 한 면만을 유일한 '현실'로 선택하고 다른 나머지 측면을 비현실적이라고 배제해버리는 것이다. 셋째는 권력성이다. 그 때 그 때의 지배권력이 선택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것이 되고 그 외의 다른 동향들은 무시되어 버린다.[60] 이러한 '현실'주의에는 "권력자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방향, 그러나 아직 반드시 지배적이지 않은 동향에 대해서 큰 폭으로 진지(陣地)를 내어주고 마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61]

이에 비해 정치적 리얼리즘은 "현실이라는 것을 고정된,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의 묶음"으로 보고, "그 중에 있는 여러 가능성 중에서 어느 가능성을 키워나갈 것인지, 혹은 어느 가능성을 개선해 갈 것인지, 그러한 것을 정치의 이상이나 목표와 관련시켜 가는 사고방식"이라고 마루야마는 말한다. 따라서 정치적 리얼리즘은 현실 진행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동반하는 정치적 선택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여러 가능성의 묶음 중에서 어느 가능성이 장래에 점점 커져 갈 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장래에 점점 없어져 갈 지 모른다. 따라서 현실인식은 방향성의 인식이라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다양한 가능성의 방향성을 인식하고 선택하며, 어느 방향을 이후 키워가는 것이 옳은가 고민하고, 어느 방향은 더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것이 커지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이다.[62]

마루야마는 '현실'주의에 직면하여, "우리들은 관념론이라는 비난에 위축되지 말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특수한 '현실'관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성사실에 더 이상의 굴복을 거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거절이 비록 하나하나는 아무리 미미할 지라도, 거절하는 만큼 우리가 선택하는 현실을 좀 더 추진하고 좀 더 유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63]라고 절규했다.

이러한 마루야마의 구분에 입각하여 판단한다면, 후쿠자와는 '현실'주의와 정

60) 丸山真男(1995)「'現実'主義の陥穽」『丸山真男集』5 岩波書店, pp.200.
61) 丸山真男, 上掲書, pp.203.
62) 丸山真男(1996)「政治的判断」『丸山真男集』7 岩波書店, p.319.
63) 丸山真男(1995)「'現実'主義の陥穽」『丸山真男集』5 岩波書店, pp.20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치적 리얼리즘 중에 어느 쪽에 속할까?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후자라는 것이 마루야마의 주장이다. 후쿠자와는 이념과 현실 사이의 준엄한 긴장관계를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의 국가이성의 사상은 자기기만이나 위선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루야마의 설명은 거기까지다. 후쿠자와가 현실을 어떻게 보고, 정치의 이상과 목표와 관련하여 현실의 방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선택을 했나 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 끝으로 빠진 부분을 메워가며 후쿠자와의 실상을 재구성해보자.

Ⅶ. 맺음말

후쿠자와는 당시의 제국주의를 '현실' 즉 어쩔 수 없는 기성사실로 받아들이고, 동아연대를 통한 제국주의 대항, 또는 만국공법에 입각한 국가간의 관계 설정 등의 현실의 다른 측면을 비현실적이라고 배제해버렸다. 그는 당시의 강대국이 선택한 방향을 유일한 현실로 인정하고 다른 동향들은 무시해버렸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이념을 극단적으로 설정하여 현실과의 관련성을 소멸시켜 버렸다. 그리하여 그가 선택한 일본의 독립이란 '이념'을 벗어던진 '현실', 즉 제국주의라는 주어진 질서에 편입하여 제국주의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념과 현실의 긴장관계에 대한 인식은 유지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긴장성은 국제정치에서의 권력의 편중이라는 현실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후쿠자와의 선택은 단순히 현실을 추종한 것일 뿐만이 아니며, 오히려 현실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때로는 현실을 앞질러 유도하기조차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는 압도적인 현실의 위력에 굴복하여 권력의 편중에 혹닉(惑溺)된 울트라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다.

마루야마는 지식인 특유의 약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지식인의 경우는 어설프게 이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종종 자기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의 진행에 대해서도, 어느 사이엔가 이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는 논리를 꾸며내어 양심을 만족시켜 버립니다. 기성사실에의 굴복이 굴복으로서 의식되고 있는 동안은 아직 괜찮습니다. 그런 한에서는 자신의 입장과 기성사실 사이의 긴장관계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기가 약한 지식인은 마침내 이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쪽에서 접근하여 그 갭을 메워버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수중에 있는 사상이나 학문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끝없는 자기기만의 힘에 의해 이 실질적인 굴복은 어느덧 결코 굴복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 본래 입장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제의 자기와 접속하게 되는 것입니다.64)

평화를 포기하고 자유를 유보한 후쿠자와의 사유와 행동은 이 인용문에 묘사된 지식인의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가?

이 글에서는 마루야마의 후쿠자와에 대한 혹닉을 마루야마의 사상을 통해 내재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마루야마는 왜 그랬을까?

64) 丸山眞男, 上揭書, pp.2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가루베 다다시 저, 박홍규 역(2011)『마루야마 마사오: 리버럴리스트의 초상』논형, p.91-180.
마루야마 마사오 저, 김석근 역(2007)『"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문학동네, p.8-701.
마루야마 마사오 저, 김석근 역(1998)『충성과 반역』나남출판, p.308.
후쿠자와 유키치 저, 임종원 역(2012)『문명론의 개략』제이엔씨, p.363-404.
丸山真男(2001)「『福沢諭吉選集』第四巻 解題」『福沢諭吉の哲学 他六篇』岩波書店, pp.119-156.
丸山真男(1996)「政治的判断」『丸山真男集』7 岩波書店, pp.319.
丸山真男(1995)「'現実'主義の陥穽」『丸山真男集』5 岩波書店, pp.200-203.
本居宣長(1968)「古事記伝」『本居宣長全集』9 筑摩書房, pp.294.

❖ 투고일 : 2014.06.27
❖ 심사완료일 : 2014.07.25
❖ 게재확정일 : 2014.08.12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국문초록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국제정치관을 중심으로 -

박홍규

정치사상사가(思想史家)로서의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14-1996)의 제1 주제는 국민국가론(근대 내셔널리즘)이다. 마루야마가 이를 본격적으로 자기화한 계기는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1835-1901)와의 지적 대면을 통해서였다. 마루야마는 메이지 초기 후쿠자와의 사유와 행동에 자신을 투영시켜가며 자신의 실존과 학문의 활로를 모색했고, 전후에는 본격적으로 후쿠자와의 유산—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을 포함하여—을 계승하고자 했다. 그러나 후쿠자와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었다. 그의 국가관과 국제정치관은 근대 일본의 국권(國權) 확장에 대한 길을 사상적으로 열어주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고, 실제 그의 시사(時事)론들은 메이지 10년대에 국권론으로 경사된 입장에서 쓰여 졌다. 이글에서는 마루야마가 이런 약점을 어떻게 해명했는지, 그리고 마루야마의 해명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Key Words : 마루야마 마사오, 후쿠자와 유키치, 내셔널리즘, 정치적 리얼리즘, 국제정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Fukuzawa Yukichi and Marumaya Masao in International Politics

Park, Hong-kyu

Political philosopher Maruyama Masao (丸山眞男 1914-1996)'s first topic was the nation states theory (modern nationalism). Maruyama started to think about the idea in earnest when he faced Fukuzawa Yukichi (福沢諭吉, 1835-1901) intellectually during the early Meiji era. Maruyama reflected himself to Fukuzawa's ideology and behavior to seek his existence and breakthrough of study. After the war, he tried to carry on Fukuzawa's idea, includ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Fukuzawa, however, had a vulnerable spot. His views of state and international politics were criticized because the views were philosophically supporting an extension of modern Japan's national sovereignty. In fact, Maruyama's current affair discourse (時事) was biased toward the theory of sovereignty in Meiji 10s (1865~1875). This paper discusses how Maruyama defended the weak points of the theory and what were the problems of his defense.

Key Words : Maruyama Masao, Fukuzawa Yukichi, nationalism, political realism, international politics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